**출3012 Note**

**◆Cross check : 삼하2401-14 (출3012 노트)**

◇롤랜드 벅(roland buck) ;

이 규례에 따르면,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별로 반 세겔의 은을 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속전에 관한 규례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매년 가족의 수대로 반 세겔씩을 내게 하셨습니다,

삼하2401. 그리고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거슬러 불지펴지니라, 이에 그분께서 다윗을 움직여 그들을 거슬러 말하게 하니라 곧,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계수하라,

삼하2402. 이는 왕이 그와 함께 있던 군대의 수령(사르:수령,장관,두목,대장,지배자,관리자,주인,통치자,고용주,청지기) 요압에게 이를 말하였음이라, 단으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통해 이제 가라, 그리고 너희는 백성을 계수하라, 그러면 내가 백성의 수(數)를 알 것이니라,

삼하2403. 이에 요압이 왕에게 말하니라, 그들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이제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백배를 보태시기를! 그리고 내주 왕의 눈들이 그것을 보게 되시기를! 그러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이 일 가운데서 기뻐하시나이까?

삼하2404.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말이 요압에 대해, 군대의 수령들에 대해 우세하였느니라 (하자크:달라붙다,잡다,강하다,용기있는,강하게 하다,완고한,정복하다,지속하다,강제하다,꾸준하다,용기를 내다,고무하다,세워지다,붙들어 매다,강팎하게 하다,강팍한,굳게 지속되다,유지하다,사나이 답게 굴다,힘있게 되다,승리하다,붙들다,용맹스럽게 행하다,견디어 내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기 위해, 요압과 군대의 수령들이 왕의 면전으로부터 나가니라,

삼하2405. 그리고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아로엘에서, 갓 강의 중앙에 누워있는 성(城)의 오른편에서, 야셀을 향해서 진(陣)을 치니라,

삼하2406. 그후에 그들이 길르앗으로, 또 닷딤홋시의 땅에로 오니라, 그리고 그들이 다냐안에로, 시돈 주변에로 오니라,

삼하2407. 그리고 두로의 요새에로, 히위인들과 가나안인들의 모든 성(城)들에로 오니라,

그리고 그들이 유다의 남쪽으로, 브엘세바까지 가니라,

삼하2408. 그래서 그들이 온 땅을 통해 지나갔을 때에, 그들이 아홉달 이십일의 끝에 예루살렘으로 오니라,

삼하2409. 그리고 요압이 백성의 수(數)의 총계를 왕에게 올리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팔십만명의 검을 빼는 용감한 남자들이 있었으며, 그리고 유다의 남자들은 오십만명의 남자들이었느니라,

삼하2410. 그리고 다윗이 백성을 계수한 후에, 그의 마음이 그를 세게 치니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말하니라, 내가 행하였던 것으로 내가 심히 죄를 저질렀나이다, 그리고 오 여호와여, 이제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 종의 사악함[아본:사악함,악,과오,범법,해,(불법에 대한)징계,죄,이탈]을 치우소서, 이는 내가 매우 어리석게 행하였음이라,

삼하2411. 이는 다윗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보는 자'[호제:하자(주시하다,감지하다,이상을 보다,보다,예언하다)의 능동태 분사,환상을 본 자,(합의를 본)계약,합의,선지자,선견자,점성가]인 대언자 갓에게 왔음이라, 이르시되,

삼하2412. 다윗에게 가서 말하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느니라, 내가 네게 세가지 것들을 제시하느니라(나탈:들어올리다,부과하다,짊어지다,제공하다), 그것들 중의 하나를 네게 택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할 것이니라,

삼하2413. 그래서 갓이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니라, 그에게 말하되, 당신의 땅에서 기근의 칠년으로 당신에게 오게 하리이까? 아니면 당신의 적들이 당신을 추격하는 동안에, 당신이 그들 앞에서 삼개월간 달아날 것이니이까? 아니면 당신의 땅에서 삼일간의 악역(惡疫)(데베르:흑사병,전염병,페스트,역병,온역)이 있게 하리이까? 이제 조언하소서, 그리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 내가 무슨 답변을 돌려드려야 하는지 보이소서,

삼하2414. 이에 다윗이 갓에게 말하니라, 내가 심한 비좁음(짜르:좁은,비좁은,괴로움,조약돌,몰려드는,반대자,적대자,괴롭히는,고통받는,고민,밀접한,비탄,원수,부싯돌,작은,슬픔,곤경,고생) 가운데에 있느니라, 이제 우리로 여호와의 손 안으로 떨어지게 하라, 이는 그분의 연민[라헴:(태아를 품고있는)자궁,처녀,내장,연민,애정,자비심,불쌍히 여김]들을 크심이라, 그리고 나로 사람의 손 안으로 떨어지게 하지 말라,